

일 주 문

108산사순례기도회 8주년 범회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혜자 스님은 10월 23~25일 3일간 서울 도안사에서 '창립 8주년 기념대법회'를 개최했다.

만만한 뉴스 거제 전시
만만한 뉴스 발행인 지찬 스님은 10월 25일 거제불교회관에서 '만만한 원정단 찾아가는 갤러리' 전시를 열었다.

열린선원 초청 강연 개최
열린선원장 범현 스님은 10월 29일 오후 6시 서울 열린선원에서 밥이삭순동물을위한 진리의소리 대표 초청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카타나 치와라다나 법회
스리랑카 이주된 심터 마하보디사 주지 와치사라 스님은 10월 26일 양주 마하보디사에서 카타나 치와라다나(가사공양) 법회를 개최했다.

문화유산국민신탁 제2회 회원의날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은 10월 27일 덕수궁 중화전에서 문화유산국민신탁 제2회 회원의날 행사를 열었다.

2014불교사회적경제 포럼
이기흥 남파다종은날 이사장은 10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4 불교사회적경제 소셜임팩트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정원디자인학회 초대회장
홍광표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는 10월 18일 한국정원디자인학회 초대 회장에 선출됐다.

'붓다 석가모니' 시사회
김재영 청보리회 지도법사는 10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붓다 석가모니' 시사회를 개최했다.

동국대 특강 '붓다의 과학이야기'
김성철 동국대 교수는 11월 5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 중앙당에서 '붓다의 과학이야기-진화생물학과 뇌과학, 불교를 만나다'를 주제로 초청특강을 연다.

서울국제아트페어 개인전
정경연 홍익대 교수는 11월 2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는 2014서울국제아트페어에서 정경연 부스 개인전을 연다.

“청년불자 대표단체 위상 높일 것”

재선된 전준호 대불청 회장

“대불청 80여개 지부가 각 지역 사업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대불청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브랜드 사업을 통해 공공시설 수탁 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회장(법명 석천·49)(사진)이 제28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전준호 회장은 10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63차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재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전준호 회장은 △신행과 사업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대불청 공신력 확보 위한 브랜드사업 구축 △100주년 맞은 대불청의 기반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 회장은 가장 먼저 지회에 활용가능한 각종 사업 개발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하고 신규지회를 발굴해 창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 회장은 지난 임기동안 대불청은 문화재청 폐사지 지킴이 사업을 통해 11개 지회에서 13개 폐사지를 관리한 바 있다.

전 회장은 “현재 80개 지회로 30개 지회를 추가적으로 가입시키도록 하겠다”며 “2



브랜드사업으로 지회 활성화
컨설팅 전문위원 및 사업단
100주년·통일문제에도 앞장

년 동안 진행해 온 다양한 콘텐츠 사업과 함께 각 지구·지회 조직활성화가 과제이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지속적인 만남과 토론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기업인 등 각

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제도를 신설해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전 회장은 “청소년을 위한 인성개발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문화재 관련 사업, 등청년불자로서 해나가야 할 분야는 무궁무진하다”며 “새로운 불교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회적기업인 참교육문화사업단을 확대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20년 대불청 100주년을 앞둔 준비과정도 진행한다. 전 회장은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해 미리 사업자금을 모금할 계획”이라며 “불청신배 찾기를 지속 추진하고 브랜드 사업을 통한 후원금을 연간 1000만원씩 모으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대불청은 북측 청년불자들과도 교류에 앞장설 계획이다. 전 회장은 “조선불교도연맹과 협의해 북측불교청년단체를 매년 개최하는 전국불교청년대회에 초청하기로 했다”며 “통일을 위한 기초사업인 남북교류에도 불자청년들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불청은 이날 임시회의에 이어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2020년 창립 100주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다름도 아름다운 ‘플레랑스’를 전하다

향적 스님, 23일 ‘깨달음에는 국경이 없다’ 봉정식

조계종 중앙총회외장 향적 스님은 1989년 홀홀단신 프랑스로 떠났다. 낯선 이국 땅에서 한국 스님으로서 처음으로 프랑스 가톨릭 수도원에 들어가 1년여 수행을 한다. 이후 중단 소임을 보면서 틈틈이 수행경험과 생각들을 정리해 지난 2009년 <프랑스 수도원의 고행>을 내놨다. 종교 본질과 화합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프랑스 수도원의 고행>이 5년 만에 프랑스어판으로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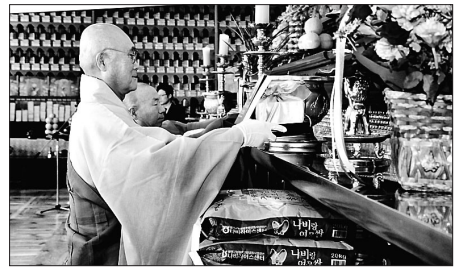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총회는 10월 2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향적 스님의 <프랑스 수도원의 고행> 프랑스어판인 <깨달음에는 국경이 없

다>의 출간 기념 봉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봉정법회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교육위원장 현승 스님, 포교위원장 지원 스님, 전 호계위원장 범등 스님, 은혜사 주지 문관 스님, 중앙총회의원 스님과 주호영 새누리당 국

이날 향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다름 종교 수행자인 나를 거부감 없이 받아준 수도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이 모든 인연에 감사드린다”면서 “수도원에서 수행하면서 종교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제품 파스키에 주한 프랑스 대사 등 의빈



들도 축하의 말을 전했다. 제품 파스키에 대사는 “이번 책은 전 세계 종교들이 다름을 이해하는 ‘플레랑스’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으며, 서경대 종교연구소장 서명원 신부는 “깨달음에 경계와 한계가 없음을 책으로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적 스님의 <깨달음에는 국경이 없다>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 대사관에 제공하며 현지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여성개발원 제8대 박순 원장 취임

임시이사사회 선출돼...11월 27일 창립 14주년 기념식

불교여성개발원(·사)지혜로운여성(원장·이사장 정경연)은 10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14년도 불교여성개발원 제1차 임시 이사회 및 (사)지혜로운여성 제3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제8대 원장 및 제5대 이사장에 박순 부원장을 선임했다.

박순 신임 원장(오른쪽 사진)은 1944년 경북 포항 출신으로 세종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대학 불교학과,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석사를 졸업했다. 제1기 교부사 출신인 박순 원장은 2006년 동국대 사범대 부속여자중고등학교 교장을, 2013년 여류화가협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



한미술협회 수석부이사장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사를 맡고 있다. 2003년에는 제1차 여성불자 108인에 선정됐으며, 녹색근정훈장(2006)과 제27회 예술예술문화상 공로상(2013) 등을 수상했다. 박순 신임 원장의 취임식은 11월 27일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14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린다.

이어나 기자

전력인불자聯, 표충사서 힐링법회



전력인불자연합회(회장 장재원)는 10월 17~18일 양일간 밀양 표충사에서 전력인 불자연합 제25차 정기 추계연합법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불자와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원하고자 마련됐다.

법회에는 전국 10개 기관 회원 80명이 참석했으며, 힐링법회, 철야정진이 이어졌다. 또 표충사 신도회와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힐링법회에서는 참선법 강좌, 108배 절 수행법 강좌, 지역화합 및 기도성취 대다다나 주력이 진행됐다.

봉사활동에서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30호를 방문해 준비한 쌀, 양말, 불교경전 등 생활 필수품을 전달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불연은 향후 지역불자와의 화합법회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묘관 스님, 동국대 5000만원 쾌척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10월 22일 합천 용흥사 묘관 스님이 인재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금 5000만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

묘관 스님은 “평소 불교의 발전은 인재양성에 있다는 생각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립학교인 동국대에 조금씩 보시를 해왔다. 최근 언론사 대학평가에서 동국대가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기쁘고 한편으로 보람도 느꼈다”며 “동국대가 더욱 발전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훌륭한 인재들 계속 배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부 소감을 말했다. 묘관 스님은 2002년 일산불교병원건립기금으로 100만원을 기부했으며, 일산불교병원발전기금 1000만원, 교차매입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장학금 5000만 원까지 총 기부액은 1억 1200만원이다.

동국대는 스님의 법명을 딴 ‘묘관장학기금’을 개설해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금강사, 제6회 세계음식 경연 열어



거제 금강사는 10월 19일 경내에서 제 6회 세계음식 경연 및 사찰음식 전시회를 개최했다. 다문화 가족 및 일반시민들이 참여한 이 행사는 세계 음식 경연, 사찰음식 전시, 체험마당, 축하 공연 등이 이어졌다.

정혜숙 기자

대한불교원효종

미등록 종도들에 대한 최종등록 및 징계 예정 공고

대한불교원효종 종도로서 현재까지 총무원에 등록을 하지 않은 종도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등록 및 징계예정을 공고합니다.

1. 대한불교원효종은 2013년 11월 28일 총무원장으로 우석스님이 당선되어 총무행정을 관장하고 있음에도 일부 종도들이 도당을 형성하여 별도로 총무원장, 종정을 선출하는 등 해종행위를 하면서 신랄한 종도들을 현혹하여 총무원에의 종도등록을 방해하고 있는 바,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모든 미등록 종도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종도등록의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이번 기회에도 종도등록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해종행위를 하는 종도들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치탈도첩의 징계를 하여 다시는 대한불교원효종의 종도가 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2. 모든 미등록 종도들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주민등록등본, 승려증 사본을 구비하여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경주시 서라벌대로 322-10)으로 방문하여 종도등록을 하여야 하며 문의 전화는 054)743-0700, 팩스 054)741-9002 입니다.

2014년 10월 20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합장

공 고

대한불교원효종 종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자 공고

당선자 : 법원스님, 능관스님, 명운스님, 현수스님, 지광스님

위 스님들은 2014년 10월 21일부로

대한불교원효종 종회의원으로 당선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대한불교원효종 선거관리위원장 석불

선거관리위원 : 춘명, 선운, 현수, 무공